

Question 35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출하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이군 전투기가 피격되거나
고장을 일으켜 적지 한
가운데 떨어질 경우 조종
사를 구조하기 위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간다.



영화 <R2B:리턴투베이스>에서 적지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지식현(이종석 분) 중위는 공군특수부대 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군의 전투기가 피격되거나 고장을 일으켜 불시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SART; Special Air Force Rescue Team)는 ‘있어서는 안 될, 하지만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조종사 구출작전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조종사가 적지 한가운데 떨어지거나 바다 위 혹은 험한 산악지대에 고립될 경우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항공구조사들이 소속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입니다.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비상탈출한 조종사가 있는 곳이라면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적진 한가운데든 그들은 언제라도 갑니다.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모토는 여타의 특수부대와는 달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들의 임무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항공구조사는 사격, 공중침투(고공강하), 산악등반, 수상수중침투(스쿠버), 응급의료 등 특수작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항공구조사는 170cm 이상의 공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 후에도 5년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야 정예 구조사로 활동할 수 있다.

재난시 국민을 구하는 ‘하늘의 119’

조종사 조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 항공구조사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다와 산을 가리지 않고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고 울릉도나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방의 응급환자들을 위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조종사들을 구조하는 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늘의 119 역할도 담당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공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발되는데 키는 170cm 이상이어야 하며 선발 후에도 5년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야 정예 구조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